

법조계, '브로커 김홍수 사건' 긴장 고조

제3의 법조비리 비화하나

검찰이 차관급인 현직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및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로비를 펼친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전면 수사하면서 법조계와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수사 대상이 판·검사, 경찰 간부 등 10여 명에 그치고 있지만, 김씨가 소문난 마당밭이었다는 점과 검찰이 김씨의 금전출납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확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이은 제3의 대형 법조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충격=사법부가 개혁을 부르짖으며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부장판사들이 대거 연루돼 법조계의 충격이 크다. 법조계 인콰에선 '윤상진 게이트'를 넘어 대형 태풍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크게 보며 사태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한 판사는 "법을 최종 집행하는 판사들이 연루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특히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한 젊은 법관들의 실망이 큰 데다 사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더욱 마음이 무겁다"고 법원 내 분위기를 전했다.

◇법조계, 누가 연루됐나=현재 검찰이 주목

고위급 대거 연루 충격 '살생부 다이어리' 촉각

하고 있는 법조계 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A씨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B, C, D씨, 강력사건 전문 검사 E씨, 현직 경찰서장인 I총경 등 법조계와 경찰 등 다양하다. 법조 브로커 김씨는 고법 부장판사 A씨에게 구체적인 사건 청탁내용과 제공한 액수까지 자세히 진술하고 있지만, A판사는 사건청탁은 물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와 술 마시고 인사발령 때 전별금으로 수백만원 받은 게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방법원 부장판사 B, C, D씨도 사건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최근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E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검사는 현금수수 사실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검사 1명도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도 현직에 있을 때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로비는 어떻게?=이란산 고급 양탄자 수입업자인 김씨는 판·검사와 경찰 간부들의 회식비를 대신 내주거나 휴가비와 명절 떡값을 정기적으로 전달하며 문어발식 인맥관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검사와 경찰간부까지 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에 걸쳐 인맥을 쌓아가며 거미줄 로비를 벌인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인연을 맺은 법관·검사·경찰은 사건 청탁에 따른 금품 이외에도 비싼 술자리와 자리 이동할 때 마다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받고 있다.

◇어디까지 확산되나=현재까지 단서가 확보된 판·검사, 경찰관은 모두 10여명이지만 조사가 확대될수록 관련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입수한 다이어리에 적힌 10여명 인사가 현재 수사선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수사범위를 한정했다.

일각에서는 판·검사의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면 대가성 입증에 입증돼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자 진술에 의존하는 검찰이 몇 명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서울서 수입 카펫업체 운영...법조계 마당밭 인맥

브로커 김홍수씨는 누구?

대형 법조비리의 장본인인 브로커 김홍수(58)씨는 서울 강남에서 수입 카펫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원과 검찰, 경찰에 마당밭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출신인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법조인 친구를 통해 1990년대 서울지법에 근무하던 A판사와 교분을 맺고 이후 다른 법조인 및 경찰과

도 친분을 쌓아 나갔다. 김씨는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소개받아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과정을 밟았다.

김씨는 판·검사들의 술자리에 나가 술값을 대신 계산하거나, 인사 발령으로 떠나는 판·검사들에게 많게는 500만원까지 전별금으로 주고, 휴가비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유력 인사들의 환심을 샀다. 고가품인 수입 카펫 등을 선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페 ▲3년 내 철페 ▲5년 내 철페 ▲10년 내 철페 ▲기타(민감품목 등) 등의 방식으로 5단계로 세분화해 양허 협상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양국은 섬유 및 농업 분야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늦어도 8월초에 각 상품별 양허안의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측이 민감분야인 농업에 대해서는 양허 기간 장기화 또는 양허 제외를 요구하면서 미국측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양허기간 최소화할 요구함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상품개방 5단계로...쌀은 제외' 제안

한미 FTA 2차 본협상 농업·상품 양허안 동시교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양측이 상품 분야 양허안을 만들기 위한 틀에 합의했으며 섬유, 농업, 상품 양허안을 동시 교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쌀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중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3일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에서 미국의 쌀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해 "쌀에 관련한 개방 제외가 원칙"이라며 "이번 FTA 협상에서는 관세화든 물량이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중훈 수석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2014년까지 국내 소비량의 8%를 수입하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의 협상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은 상품 분야의 양허(개방)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만여개에 달하는 각 상품에 대해 ▲관세 즉시

이스라엘, 하마스·헤즈볼라 동시 타격...중동 초긴장

가자지구·레바논에 '폭탄 세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레바논 내 민병조직인 헤즈볼라의 잇단 이스라엘 병사 납치공격에 맞서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전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2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헤즈볼라에 각각 납치된 자국 병사 3명이 풀려날 때까지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재소자들을 석방하기 전에는 납치 병사들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간의 무력충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이틀째 공습=이스라엘군은 13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교외에 있는 베이루트 국제공항 활주로에 최소한 로켓탄 5발을 발사해 공항이 무기한 폐쇄되고 이곳에 착륙하려던 항공기들이 무더기 회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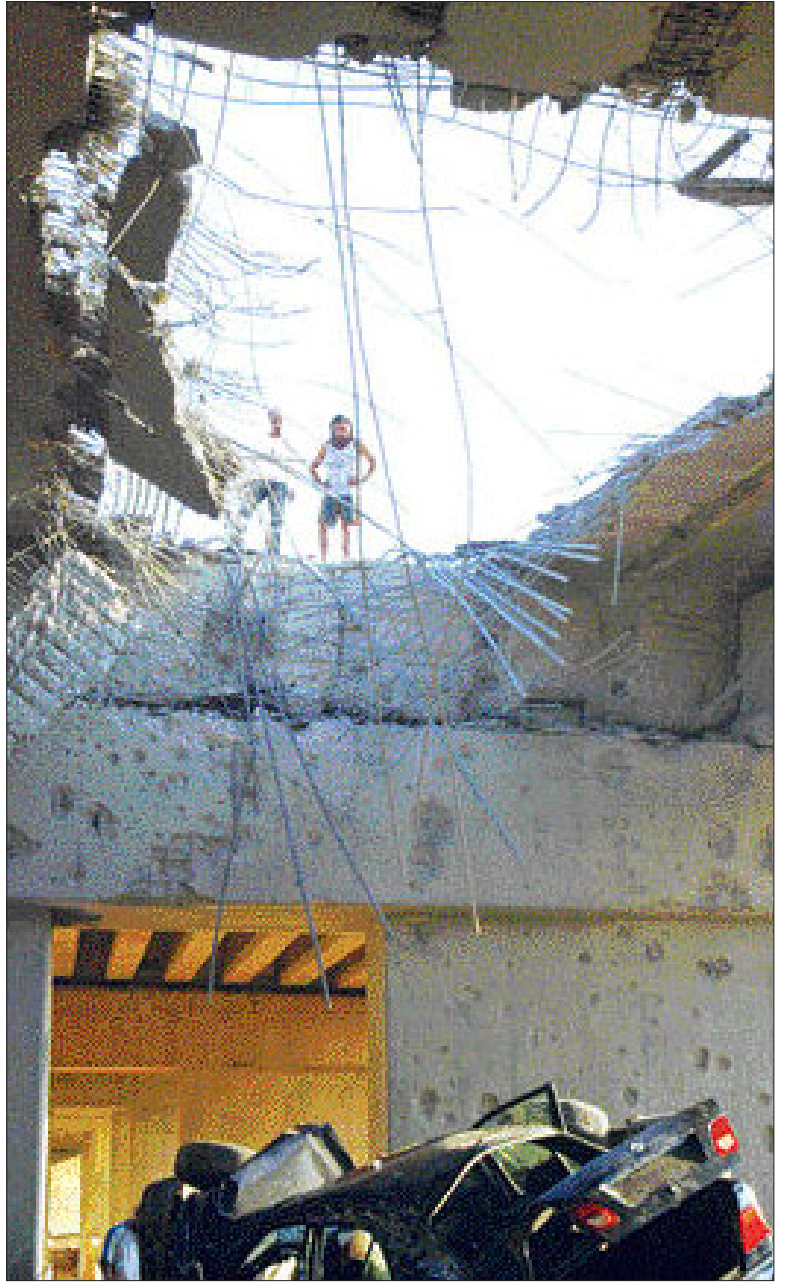
이스라엘군은 또 이날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습해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민간인 2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레바논 경찰이 말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군의 이날 공격에 대항해 이스라엘 북부 나하리아 시(市)에 로켓공격을 가해 이스라엘 민간인 1명이 숨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에 대한 전면 공세를 단행한 것은 18년 간의 레바논 남부 점령을 끝내고 2000년 5월 철수한 이래 처음이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외무부 청사 폭격=이스라엘군은 13일 새벽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 청사를 폭격해 어린이들을 포함해 최소 13명이 부상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미사일 등이 동원돼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이뤄진 폭격으로 4층 짜리 자치정부 외무부 청사가 붕괴하고 주변에 있는 일부 주택과 차량도 심하게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를 폭격한 13일 레바논 시민들이 폭격에 부서진 다리 밑으로 추락한 자동차 잔해를 바라보며 망연자실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손됐다. 타히르 알-누누 자치정부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국가 테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은 자국에 테러공격을 가해온 하마스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이스라엘군의 길라드 살리트(25) 상병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하마스 무장조직인 이제딘 알-카삼여단은 "강력하고 고통스런"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전남도의회 한미 FTA 대책·협상공개 촉구

전남도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선 대책 후 협상 및 공개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에 전달했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방향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 협상 전에 농업 분야 중·장기 사전대책 마련 ▲미국의 요구사항 등 정부측 정보 공유 및 협상의 공개 추진 ▲FTA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 ▲협상진행에 농업인 참여 보장 ▲농업인 분야 자체 경쟁력 확보 범위내 협상 추진 등을 촉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교육가시대 신기술 태양열 난방 온수기!!

물을 미처로한 태양열 난방 온수시스템

40년 전무최고의 전문
- 난방 온수 시스템
- 협회 등 인증사업자

살생방도
주요 신기술, 공학, 기술사, 가전, 석학, 학원, 중·고사실 등
6A, 7기 전국최고

수강30대만정
- 신청순 설치
- 설치기구형
- 100만원 지원
- 7.5-7.20

대덕솔라 10621-369-1800
10611-242-7704

7.9 공무원 **부경철직** **공인중개사**

행정직, 사무직, 소위직, 농업직, 교정직, 경찰직, 공무원, 운전면허, 운전교육, 운전강좌, 운전강좌, 운전강좌, 운전강좌

40년 전무최고의 전문
- 난방 온수 시스템
- 협회 등 인증사업자

전남고시학원 전남고시학원
www.tnhighschool.com

전남고시학원
011-222-5105

경제외센터

신선식품
1000234-9913
011-999-7300

경제외센터
011-222-5105